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 구성·파견

수석사절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천해성 통일부 차장 등 5명, 오늘 방북 1박2일간 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수석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 명단과 일정을 발표했다.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미대화 물꼬를 틀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사단은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실무진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은 5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방북해 1박2일간 머문 뒤 6일 오후 돌아온다.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별 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특사단은 5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1박2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사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

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절단은 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주요 관계국인 중국 및 일본 과도 방북 내용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No'

도.전주대 등 6개 대학에 이동상담센터 운영
공정위 등 기관과 연대 피해예방 교육 등 실시

전북도는 최근 대학교 입학시즌을 맞아 강의실 등에서 방문판매사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어학 등 교육 서비스 과정을 홍보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비자들에게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일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전북 6개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상담센터운영은 사전 피해예방의 일환으로 대학생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방문·전화 권유판매, 불법피라미드, 인터넷쇼핑몰 거래 등 특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전북도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군산대, 3월 2일 전주대, 호원대 신입생Orientation을 통해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오규호대리가 신입생들에게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 소비자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지적 역량을 강화시켰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사회 적응력이나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업체의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부분 설문조사나 피루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자격증 또는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학교 선배 동문이라고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어학교재를 강매하기도 하므로 대학생 신입 재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 황철호 일지리경제정책관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정보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동상담 및 맞춤형 소비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남원 용성고 기숙사 신축 예산 16억3700만원 확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난항을 겪던 남원 용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이 국가예산 확보로 본격 추진된다.

이로써 남원 관내 모든 학교들에 기숙사 시설이 갖춰질 전망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인실·순창)은 지난 2일 용성고 기숙사 신축 총 사업비 16억 3,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용성고는 로봇산업 분야 특성 화교교인들도 기숙사가 없어 집중지도가 어렵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관내 면 단위 교통 불편 학생이나 인접 시·군 중학생들이 수용하지 못해 신입생 충입률이 5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훈련 후 늦은 시간 귀가해야 하는 학생과 10km 이상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통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컸다.

기숙사가 신축되면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돼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이 증진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거리 산간지역 거주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용호 의원은 "용성고는 남원 관내 7개 고교 중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었는데, 신축예산을 확보해 묵은 숙제를 해결한 심정"이라며, "이제 모든 고교에 기숙사 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남원이 전북 동부산간지역에서 교육 중심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평창 패럴림픽 성화, 고창서 불 밝히다

시가행진·성공기원 행사 등
군, 3일까지 이틀간 성화봉송

고창군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펼쳐졌다.

성화봉송은 제37회 고창 오거리당산제와 연계해 고창군 중앙당산과 고창읍성 광장, 고인돌유적지 등 고창군 일원에서 진행됐다.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화는 전국 5개 권역 시·군(전라도 고창군, 경기도 안양시, 충청도 논산시, 경상도 청도군, 제주도 제주시)에서 채화됐으며 3일 각 시·군 내 봉송로로 이동한 희망의 불꽃이 서울 올림픽공원원에서 합화한 후 대회 개최일인 9일 개최식이 열리는 평창에 도착한다.

고창군에서는 2일 정오 중앙당산에서 성화채화 후 고창읍성 앞 모양교~고창군청~터미널~전통시장~중앙당산까지 약 3km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성화채화 행사 중 중앙당산과 고창읍성 광장에서는 고창오거리당산제와 연계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열렸다.

성공 기원 행사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고석원 위원장,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하이라이트로 소망기원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려 패럴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군민들의 열원과 희망이 담긴 성화의 불꽃이 뜨겁게



고창군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펼쳐졌다. 사진은 성화채화 행사.

타올랐으며 오거리 당산놀이인 연등놀이, 대동놀이와 당산 옷 입히기까지 풍성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3일 진행된 성화봉송은 고창군청에서 시작해 고창여중, 고창경찰서, 터미널 사거리, 제일아파트 등 고창읍 시가지를 거쳐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4.8km구간을 48명의 주자가 참여하고 이색봉송으로 고인돌 유적지에서 모로모로 열차를 이용하여 봉송행사가 진행됐다.

고창군에서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올림픽 메달리스트 홍성식씨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꿈과 열정을 펼치고 지역사회에 헌신과 봉사로 귀감이 되어 온 이연호, 서경찬, 정종만, 최선례, 배

금옥씨 등 고창군민 8명이 봉송주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우정 군수는 "한국인의 분량, 고창군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 봉송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은 올림픽 대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올림픽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성화봉송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안전하게 이뤄졌다"며 "6만 고창군민들의 열정과 열원이 모든 선수들에게 전해져 오랜 기간 준비해온 역량을 아낌없이 펼치고 장애를 넘어 모두가 평화와 희망,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적인 패럴림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전개

전주시, 현장 징수단 발족

전주시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현장 징수단(단장 부시장)을 발족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과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처분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장 징수단은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최근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은닉재산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소유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출채권 압류,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체납 처분으로 맞춤형 체납 징수의 틀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생계형과 고질체납자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대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보류하고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이 감면(비과세)받은 물건을 그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방세 감면(비과세)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